

봄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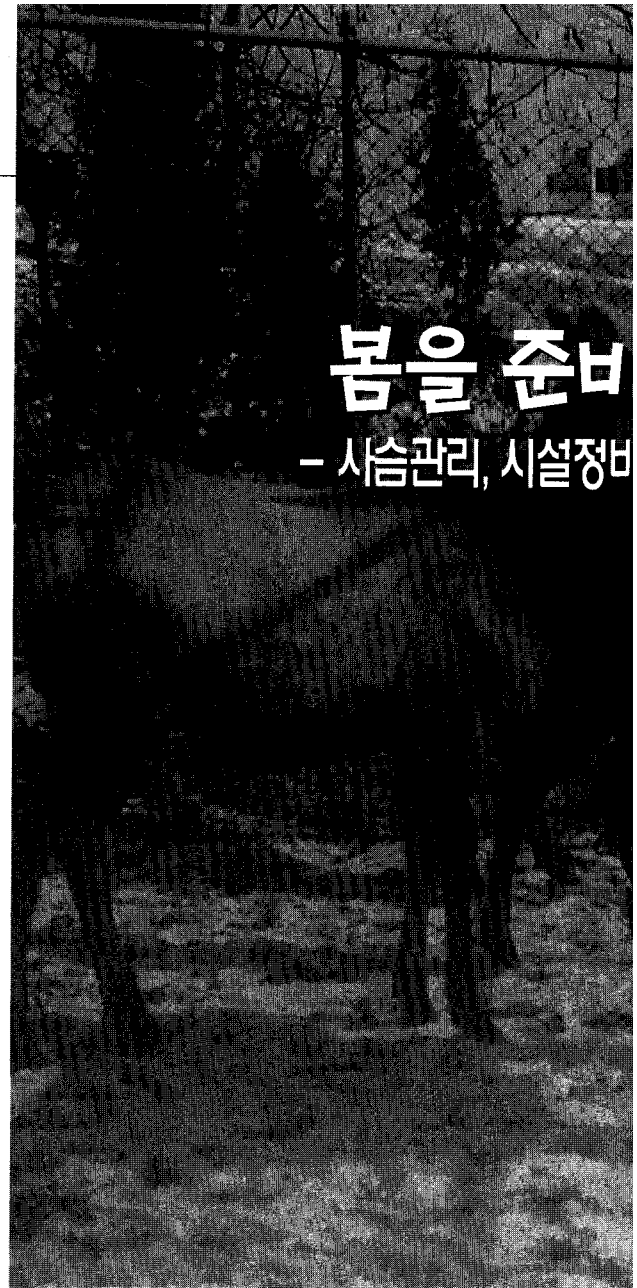
- 사슴관리, 시설정비

농촌에서 추수가 끝난 겨울동안은 일년 중 가장 한가한 농한기이다. 농한기를 순우리말로 '겨를철'이라 한다. '겨를'은 바쁜 가운데 얻는 틈을 말한다. '겨를철'은 '여유 있는 한가한 철'이라는 데서 농한기(農閑期)를 뜻하게 됐다.

농촌주민들은 농한기 동안 짬짬이 부업을 하며 이듬해 농사도 준비한다. 예전 부업은 가마니짜기, 새끼꼬기, 덕석짜기, 돛자리짜기 등의 고품품(藁工品)가공과 죽세공예품 만들기가 주로 행해졌다.

7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은 봄에 씨를 파종하여 가을에 추수하는 농업의 형태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겨울철 농한기에 할 일이 없어 동네 어귀에 옹기종기 모여 금년 농사의 뒷얘기를 하며 소일을 지내왔다.

80년대 접어들어 시설하우스 농업이 대도시 인접지역에서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농촌의 농한기도 예전만큼 한가한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농번기만큼은 아니어서 나름대로 짬을 내며 내년 농사도 준비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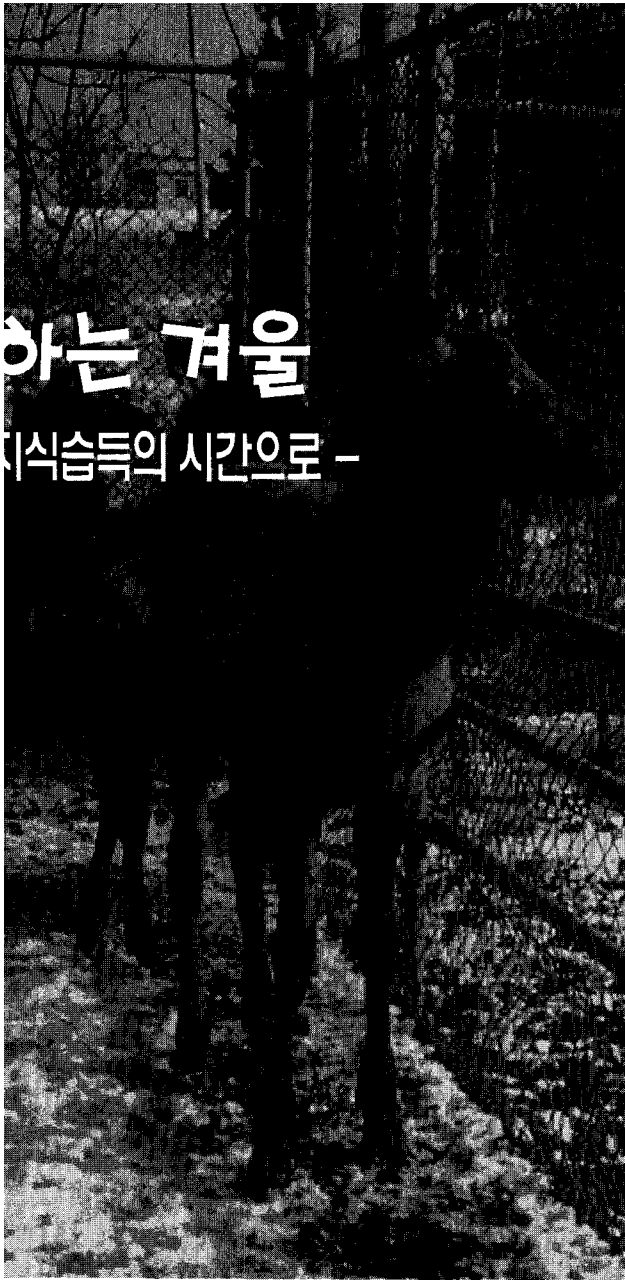


사슴농사는 일반 재배 농사와 달라 살아 있는 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특별히 농한기를 정하기 힘들다. 사슴이 겨울이라고 사료를 먹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요, 배설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용 성장기인 봄이나 질각철인 여름, 발정기인 가을보다야 겨울이 상대적으로 일손이 덜하다. 채취할 산야초도 없으니 저장된 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이 할애 준 시간인 셈.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여



하는 겨울

지식습득의 시간으로 -



유지적으로 보내기엔 농장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제법 많다. 절각철, 발정기를 지나며 허술해진 사슴장도 정비해야 하고 이듬해 최적의 녹용 생장을 위해 사양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농사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발췌해내고 이듬해엔 보다 완벽한 경영전략을 세워 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지금이다.

한가지 더. 적어도 양록업을 생업으로 여

기는 사람들은 사슴과 녹용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탄탄한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양록인은 소비자들의 어떠한 질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각철 농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녹용과 사슴의 효능 및 용법,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 건강에 예민한 소비자들은 궁금한 것도, 신기한 것도 많은 법이다. 어설픈 대답, 우물쭈물한 답변은 약효에 대한 확신을 반감시킬 뿐이다. 올 겨울 각 시·군 및 양록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사슴관련의 다양한 영농교육이 준비되고 있다고 들린다. 이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자세로 참여해 봄직하다. 여기에 녹용 및 한의약 관련 서적, 인터넷 정보 등을 찾아보는 것도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 현명한 방법이다.

게으른 농부에게는 봄이 두려운 법이다. 봄은 너무 짧고 그래서 더욱 분주하다. 이것저것 사슴농사 준비를 하기에는 벅찬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 겨울동안 천천히 많은 준비를 한 농부에게 봄은 아주 넉넉하고 푸근하다. **한국양록**